



月刊 **시민국 이야기**

2012年 3月 제 1호<창간호>

01. 시민국 이야기를 쓰면서<발간사>
02. 국가 기록원은???

발간사 - 시민국 이야기를 쓰면서

일단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시민국 이야기라는 잡지는 한달동안 시민국에 있었던 것들이라던지 정부의 발표라던지 이런 기타 잡다한 정보들을 한달 단위로 정리해서 올리는 그런 류의 잡지로 생각해두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The Citizen Times>라는 PDF 형식의 신문을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시민국에도 인쇄할 수 있는 형식의 신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 다른 경쟁 신문들도 하나씩 생겨나게 되죠. 하지만 신문을 읽을 수 있는 독자에 비해 파이가 너무 커져버리게 되면서 결국 거품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이러한 거품들이 꺼지면서 언론사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제가 제작했던 이것 역시 당시 학업상의 이유로 제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후에 제작이 여러차례 시도는 되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민국 이야기를 발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작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시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기초적인 틀을 짜고 여기에 어떠한 내용을 실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중요합니다. 과연 시민국을 위한 잡지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생각과 오랫동안 진행할 수 있는 끈기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꾸준함과 변하지 않는 국가 차원에서의 잡지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국가 차원에서 잡지같은 소식지를 만드는 것은 오픈심 이전 이후로도 국민들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웹진 등을 보내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어지기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치않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보내야 하는 것도 그런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여지껏 언론들은 자기가 보고 싶으면 게시물에 들어가서 다운 받아서 본 것이 당연지사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문화가 주류였습니다.

창간판을 펴내면서도 일단 저렇게 목표를 잡아두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선 가이드라던지 지침이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틀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발간을 하면서 많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간을 하다보면 오타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내용이 안맞는 내용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한 지적 부탁드립니다. 완벽은 하루 아침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 기록원은?

국가기록원은 시민국내 각종 역사 자료 및 자료를 채굴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대부분은 스크린샷 촬영 등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협조하여 역사 자료를 수집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국 대백과사전을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1. 국가기록원의 역사

국가 기록원의 시작은 사샤 시슬리씨가 시민국 성립 이전에 희망마음이 개방되면서 자유마을 역사를 정리하면서 국가 기록 보존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시민국이 성립되면서 관련 기관이 존재했던 것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의 미비로 알아 낼 수가 없으나, 제 3대 시민국 정부가 들어서면서(대통령 사샤 시슬리) 이시기에 국무총리 산하로 다다윌즈사 편찬위원회라는 기구가 들어서고 당시 gkgkgk4씨가 보직에 위임되면서부터 국가기록원의 역사는 공식적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단순히 다다윌즈사 편찬위원회 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화 보존 관련 목적의 부서인 문화관광부와 그 밑에 산하 기관인 궁전관리위원회의 등장으로 문화재를 관리/전담하고 이를 기록하는 부서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 기관에서의 뚜렷한 활동은 언급된 관련자료가 없습니다.

이후 다다윌즈카페 상에서 토트 합스부르크에 의해 시민국내 보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축물들에 대해 유네스코라는 기관을 설립하고(<http://www.usci.kr/CafeArticle/72> 2004년 4월 20일) 이를 토대로 쾰른대성당을 문화재로 지정하게 됩니다. (<http://www.usci.kr/CafeArticle/76> 2004년 4월 27일) 그리고 이후 토트 합스부르크에 의거하여 시민국 역사가 서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05년에는 사샤 시슬리에 의하여 네이버에 시민월드연방국 대백과사전이라는 카페가 개설되면서 본격적으로 기존에 다다윌즈 카페상으로만 존재했던 시민국의 모든 잡다한 지식들이 이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http://cafe.naver.com/uscdictionary>)

한동안은 네이버에 존재했던 대백과사전 카페를 통해 잡다한 지식들이라던지 역사적인 자료가 등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2006년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날짜단위로 역사가 작성되기 시작하나, 본격적으로 시민국내에서 날짜단위로 역사가 작성하게 된 것은 2007년 6월 6일에 개장한 평화마을 주 이후의 역사를 당시 전입한 새시티즌들에 의해 역사가 작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8년 7월경, 가상국가 최초로 미디어 위키 기반의 시민국 위키가 탄생하면서 기존 네이버 카페상으로 존재했던 대백과사전의 내용들은 모두 이전작업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와 별개로 서한산이 시민국에 온 뒤로 차츰 다다윌즈에서 여러 가지 사진 촬영을 실시하면서, 이러한 자료들은 나중에 통계청장직에 오르면서 이러한 자료들을 통계청 내 자체적인 자료 보관소(<http://mbosusc.egloos.com> <http://uscmbos.tistory.com>)을 통해 보관/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서한산은 NT 그룹의 자회사인 아메스 앤 베리타스에 근무하면서 촬영한 각종 사진 및 영상자료들을 제작하여 시민국 대백과사전에 올리게되었습니다.

기존의 문화재 보존 등 관련 업무를 주관했던 문화관광부는 제 13대 시민국 내각(대통령 알브레히트 합스부르

크)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라지면서 더 이상 업무를 주관할 수 없게됩니다. 동시에 유네스코도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민국 대백과사전은 연방도서관 산하의 사전편찬위원회로써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전편찬위원회에도 한동안 공식으로 운영되어 왔었으나, 이후에 장 도미니크 시슬리씨가 임명되면서 사전편찬위원회 운영이 정상화가 이루어지게됩니다. 하지만 당시 사전편찬위원회는 시민국내 역사 자료 및 문화재를 발굴/관리한다는 의미보다는 되려 시민국 대백과사전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보존하는 단체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지만 통계청에서 통계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시민국내 다양한 자료들을 채집/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업무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제 13대 시민국 내각에서 사라진 문화관광부와 동시에 다다월즈 관리자와 시민국간의 관계악화, 오픈심 서버 이전등으로 다다월즈의 자료 채집은 끝나고 2010년 오픈심 이전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회원들에 의한 자발적인 자료 채집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오픈심 이전을 하면서 대부분의 회원들이 스크린샷을 남겼고, 이와 동시에 통계청도 통계 자료 제작 및 조사를 목적으로 스크린샷을 통해 역사자료를 수집하고 공개하게 됩니다.

이후 제 18대 시민국 내각을 통해 기존에 있었던 사전편찬위원회가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이 공식적으로 변경이 되면서 관련업무가 확장을 이루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국가기록원의 역할 수행

국가 기록원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시민국내에 각종 문화/역사 자료를 채굴하고 이것들을 정리하여 게시하거나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픈심 이전 이후로 시민국에 대해 별다른 보존을 필요로한 유물은 존재하지 않고 있으나, 오픈심이전의 역사자료를 발굴하거나, 오픈심 이전 이후의 현재의 역사기록을 하는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산하로 시민국 대백과사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자료 수집 범위

현재는 시민국의 현대 역사의 작성이나 자료 채집에 주안을 두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다다월즈의 2007년 이후에서 오픈심 이전까지의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고 서서히 2007년 이전의 시민국 역사 수집과 정리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자료가 정리가 끝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자료 정리 및 채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4. 향후 운영방안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으나, 일단 독자적이고 편향적인 역사편집을 막기 위해 시민국 다양각층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역사제작을 이룰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초안을 공개하고 여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바탕으로 역사를 수정하여 최종본을 제작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업로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민국 역사들을 PDF파일 형식으로 만들어서 책자로 발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도 더 필요하고 제작에 들어가는 인원과 시간도 많이 소모되는 시민국 최대의 국책사업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국 국가 기록원은 앞으로도 시민국 역사 기록과 문화재 발굴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후손들에게 이러한 역사적 자료 제공을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간 시민국 이야기
2012년 3월 창간호

발행인 : 서한산

발행사 : 시민월드연방국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기록원(구, 사전편찬위원회)
(시민특구 교육과학기술부 청사내)

- 표지사진 - 영감공원역과 영감공원의 늦은 저녁 모습
- 본 출판물에 나온 모든 내용 및 사실들은 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의 의견 및 공식적으로 올라온 자료들에 의거하여 제작된 사실들입니다.
- 본 출판물에 나온 모든 내용 및 자료들은 별도의 사용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출처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 기타 문의는 국가기록원에 연락하시거나 내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출판물에는 서울 한강제와 남산제로 제작되었습니다.